

고건 사회통합위원장 특별기고

— 光州日報 58주년에 부쳐



호남언론의 상징인 광주일보가 창간 58주년을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광주일보의 지난 58년의 역사는 지방언론이 처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언제나 지역주민들의 참된 민의를 전달하면서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값진 발자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광주일보는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과 크고 작은 지역문제 해결의 조타수 역할을 충실하게 해 왔습니다. 또한, 호남예술제 개최를 비롯하여 다양한 지역 문화, 체육, 교육사업도 펼쳐 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일보를 호남의 대표적인 지방언론으로 이끌어 오신 광주일보 임직원 여러분과 광주일

보를 애독해 주신 독자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젊었을 때(1975~1979년) 전남도지사로써, 광주전남지역발전을 위해 저의 젊음과 땀과 정성을 모두 쏟았습니다.

지역·계층갈등 사슬 끊어야

광주·전남지역은 당시에 거의 매년 한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영산강은 전남광역의 젖줄이면서도 매년 한해와 수해를 속편쳐려 겪어 왔습니다. 저는 도지사로써, 이 같은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잠성범을

비롯한 4개 댐과 목포하구둑을 건설하는 대단위 토목건설사업인 영산강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 성공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당시, 광주일보의 전신인 전남일보가 이 영산강개발사업을 대대적으로 계속 보도함으로써 주민 참여와 협조를 선도해 주신 것을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남도지사를 떠난 다음 해에, 광주는 역사의 중요한 고비를 맞게 됩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은 이 땅의 모든 민주화운동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1997년 국무총리로서 5·18국립묘지를 비로소 법제화하고 현장에서 정부를 대표해 처음으로 추모행사를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일을 기념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처럼 광주·전남은 제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젊은 도지사를 성장시켜준 어머니 품과 같은 곳

입니다. 또한, 저는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중대한 역사의 고비와 숙명적인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 현대사에서 지역·이념 갈등의

광주일보가 화합 앞장서주길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광주·전남 지역의 사회통합과 광주일보의 역할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5·18은 더 이상 이념 갈등이나 원한의 시발점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지향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광주가 고질적인 지역감정이나 계층간의 갈등의 사슬을 단호히 끊고 화합과 사회통합의 길로 나가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광주·전남 지역의 사회통합 운동에 광주일보가 앞장서 주시리라고 기대

합니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사회통합위원회는 이러한 사회통합 운동을 적극 성원해 드릴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광주·전남 발전에 대한 저의 열정과 열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광주일보가 앞으로도 광주·전남의 지역발전, 그리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알권리와 행복을 이끌어주는 호남언론의 상징이 되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 ◇ 약력
-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전라남도 도지사
- ▲내무부 장관
- ▲제 30대 국무총리
- ▲사회통합위원장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다산포럼

김정남



국민이 원하지 아니하는 정치권력을 폐지할 수 있는 국민의 혁명권을 담보로 하여 존립한다.

4·19는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이 혁명권을 발동하여 국민이 원치 아니하는 정치권력을 폐지시킨 장엄한 국민혁명이었다. 피로 쓴 역사만큼 장엄한 헌장은 없다. 4·19가 바로 그 헌장이요, 기념비인 것이다.

인도의 네루는 프랑스 혁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표현했다. “그들 프랑스 국민은 기적적 이투였다. 그러나 혁명의 힘이 탄압되자 반혁명이 나타났다. 그리고 다시 독재자 나폴레옹이 나타났다. 그러나 반혁명도, 나폴레옹도 시민의 역

색독재를 무너뜨린 4·19혁명이 가 닿는 것이다.

4·19혁명 그 자체로 우리는 자랑스러웠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초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한 것이 바로 4·19혁명이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했던 외국인론은 4·19혁명이 성공한 뒤 “한국인들은 자유로운 정부를 향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썼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노래했다. “미국민이 물으면/ 서구인이 물으면/ 쿠바인이 물으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라/ 1960년 4월/ 맨몸으로 독재권력을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청년학생이라고..”

4·19는 나이 어린 초등학교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교수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 온 국민이 참여해서 성공시킨 국민혁명의 원전이었다. 4·19혁명은 온 국민의 애국심이 결집해서 만들어낸 위대한 역사였다.

4·19혁명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와 민주주의 나무는 시민의 손으로 심어지고, 시민의 피로 양육되며, 시민의 칼로 수호되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국민의 혁명권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나는 4·19혁명들이 돌아와 탐을 부수기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나라의 상징거리요 4·19혁명의 현상이었던 광화문 네거리에 4·19민주혁명탑이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월의 하늘은 이렇듯 청명한데 4·19혁명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네 심사는 왜 이리 우울하고 스산한가.

〈언론인·다산연구소 제공〉

4·19에 왜 우리는 이렇게 우울한가

다분히 애상적이다. 1970년대 아직은 열혈청년이었던 백기완은 4·19혁명들을 향해 당시들에게 혼백이 있으면 돌아와 탐을 부수라고 울부짖었다. 4·19혁명들이 말로 수유리 산골짜기에 유쾌되어 산새나 진달래와 벗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그 탐을 부수고 나와 4·19때 그랬던 것처럼 광

사물 옛날로 되돌려 보낼 수는 없었다.

혁명이란 당장의 성과보다도 그것이 제시하는 역사의 방향성과 상징성에서 찾아야 한다. 이념의 이정표와 기념비적인 상징을 혁명이라고 한다면 4·19는 명백한 민주주의 혁명, 바로 그것이었다.

4·19혁명이 있었기에 6·3사태도, 3선 개헌 반대투쟁도, 1970년대의 그 치열했던 반유신투쟁도, 1980년대의 광주민주화운동도, 그리고 마침내 민주주의를 쟁취한 6월 항쟁도 있을 수 있었다. 4·19혁명이 있어서 비로소 이 땅의 ‘민주화’가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길로 자기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

북한이 적색독재에 머물러 있음에 반하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게 된 것도 원류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백

70년 전 인기에 방영됐던 SBS 드라마 ‘전의 전쟁’은 돈을 둘러싼 세상살이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3년 전 인기에 방영됐던 SBS 드라마 ‘전의 전쟁’은 돈을 둘러싼 세상살이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사체업을 주된 소재로 다룬 ‘전의 전쟁’은 상식 밖의 대충과 빚독촉 과정에서 빚어지는 사람들의 절규와 비극을 그대로 표출했다. 드라마는 돈이 인간을 어디까지 지배할 수 있는가를 가감없이 깨닫게 해준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판에서 ‘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당선이 유력한 정당의 공천을 받으려는 예비후보가 유력자에게 돈을 제공하려다 발각된 것을 일컫는 말이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지난 18일 지역구 국회의원에 공천 현금으로 거액을 건네려 한 혐의로 이기수(61·한나라당) 정씨를 구속했다. 이 군수는 지난 16일 서울의 한 커피숍 앞에서 수행비서를 시켜 지역구 국회의원 수행비서에 현금 2억원이 든 소포백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이 건네질 당시 이 군수는 국회의원과 커피숍에서 만나고 있었던

검찰 고위직 출신인 지역구 국회의원은 측은 이상한 낌새를 차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역으로 돌아 가려는 이 군수의 차량을 추적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런 과당 불법 카드 모집의 결과 뻔하다. 당장은 공짜로 좋지만 결국 모두 다 소비자 부담이다.

▲유용학·광주시 서구 덕흥동

기고

박남언



인간의 행동이 유발되는 것은 ‘스스로 좋아하는 것’이거나 ‘추구해야 한다고 믿는 가치’ 때문이다. 성인에게 행동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돈, 권력, 인기, 명예와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성인의 그것과 다르다. 다름 아닌 미래에 대한 꿈과 상상력이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인물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꿈을 설계하고 이 꿈의 실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은 단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동기를 자극하는 것이어야 한다.

광주에서 지금 미래세대에게 꿈과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빛의 축

제가 펼쳐지고 있다.

지난 4월2일 개막해 5월9일까지 세계 최초로 ‘빛’을 주제로 열리는 광주세계광

지식보다 중요한 것, 꿈 그리고 상상력

엑스포는 우주선, 미래과학, 첨단항공, 빛 예술, 3D영화 등 어린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콘텐츠들로 가득 차 있다.

대한민국 1호 우주인 이소연 박사는 어린이 소년들에게 상상력의 나라를 펴고 우주에 대한 꿈을 처음 가졌다고 한다. 1969년 미국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장면 당시에 해설을 맡았던 조경철 박사는 한 어린 소년의 꿈에 동기부여를 한 시발점이 된 셈이다.

자극할 수 있는 주제들이다.

3D 애니메이션 주제 영상 ‘빛의 씨앗(SEEDED LIGHT)’이 상영되고 있는 빛주제영상관에서는 아바타라는 작품으로 3D 영상의 새 지평을 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을 능가하는 영화감독이 되고자 하는 야무진 꿈을 어린이들이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말로는 “그 꿈은 오랫동안 그녀는 사랑을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고 말했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은 광주세계엑스포 현장에서 우주인의 꿈, 파일럿의 소망, 위대한 물리학자의 탄생, 세계적인 영화감독이 되는 자신만의 꿈을 펼칠 수 있으며 이곳에서 발아된 꿈은 이소연 우주인이 그랬듯 20년 후 이 어린이들의 삶과 국가의 장래를 바꿔놓을 것이다.

어린이들이 제2의 이소연, 제임스 카메론을 꿈꿀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다. 가까운 주말 아이들의 손을 잡고 광엑스포 현장을 찾아가서 아이들이 무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꿈의 날개를 달아주자.

〈광주시 광엑스포추진기획단장〉

또 빛하늘모험전시관에서는 F-5 전투기 조종석에 탑승하는 기회와 함께 전투기를 타고 전 세계를 비행해 보는 가상비행체험을 할 수 있어 미래의 파일럿이 되고픈 아이들에게 상상력의 나라를 펴고 하고 있다.

빛을 활용한 다양한 과학적 원리를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빛과학체험전시관, 환상적인 빛예술 작품이 연출되는 빛예술전시관 등도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충분히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여성 성 상품화하는 표현 자제했으면

몇몇 전 텔레비전을 보는데 문학작품을 소개하고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패널이 ‘육덕지다’를 표현을 썼다.

그 의미는 여성을 일컬어 육덕지다, 육덕지다(또는 영당이)등 여성을 소위 색시하다는 의미로 쓸때 한국어식 표현이 육덕지다는 것이었다. 여성의 몸매나 얼굴이 무가치고 경쟁력인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것도 연예프로그가 아닌 문학작품 소개 프로그에서 그런 말을 거리낌 없이 쓰는것을 보고 약간 놀라웠다. 그런데 요즘 그 육덕지다는 말은 거의 일상화 돼가고 있는것도 걱정이지만 또하나

꿀벅지라는 말도 흔하게 쓰인다.

인간의 신체와 미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라고는 하지만 요즘 ‘허벅지 미녀’들이 인기를 모으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의 멤버들이 원조격이라고 할 수있다.

우리가 너무나 여성을 성적으로만 몰고가는 퇴폐적 편향된 사고방식이 걱정된다. 물론 특정 그룹과 연예인을 띄우기 위해 과도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던 누군가가 일부러 꿀벅지라는 말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의미 자체가 온통 성적인 상상력을 꾀게 만든다. ▲송은숙·광주시 북구 풍향동

놀이공원 내에서까지 카드 모집 마케팅 ‘짜증’

주말에 나는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을 찾았다가 현금을 내걸며 신용카드 가입을 권유하는 모집인을 만났다. 다른 사람들을 보니 3장의 카드를 발급받아 그 자리에서 현금 9만원을 받는 사람도 있었다. 아내가 내 팔을 잡아 끌며 우리도 가입해서 현금을 받고 갔으나 뭔가 미심쩍고 게을리해서 카드발급을 안받았다. 그런데 모집인은 승용차에서 내리는 우리에게 다가가 직장이나 소득 등도 묻지 않고 무작정 가입하라며 돈을 준다고 계속 설득했다.

최근에만 몇차례나 이런 카드 영업인을

만났다. 놀이공원 입장권이나 공연장 티켓 등을 공짜로 주고 연회비를 대신 내준다며 접근하면 기존 카드가 있는 사람들도 귀가 솔깃해지기 마련이다. 제시하는 경품도 아주 다양해 1인당 3만원 가량의 현금이나 짝퉁 명품 가방을 주는데 심지어 필자의 친구는 도물놀이 스타 공연에 갔다가 제주행 비행기 티켓까지 제시받은적이 있다고 한다.

이런 과당 불법 카드 모집의 결과 뻔하다. 당장은 공짜로 좋지만 결국 모두 다 소비자 부담이다.

▲유용학·광주시 서구 덕흥동

無等鼓

3년 전 인기리에 방영됐던 SBS 드라마 ‘전의 전쟁’은 돈을 둘러싼 세상살이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사체업을 주된 소재로 다룬 ‘전의 전쟁’은 상식 밖의 대충과 빚독촉 과정에서 빚어지는 사람들의 절규와 비극을 그대로 표출했다. 드라마는 돈이 인간을 어디까지 지배할 수 있는가를 가감없이 깨닫게 해준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판에서 ‘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당선이 유력한 정당의 공천을 받으려는 예비후보가 유력자에게 돈을 제공하려다 발각된 것을 일컫는 말이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지난 18일 지역구 국회의원에 공천 현금으로 거액을 건네려 한 혐의로 이기수(61·한나라당) 정씨를 구속했다. 이 군수는 지난 16일 서울의 한 커피숍 앞에서 수행비서를 시켜 지역구 국회의원 수행비서에 현금 2억원이 든 소포백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이 건네질 당시 이 군수는 국회의원과 커피숍에서 만나고 있었던

‘전의 전쟁’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직 출신인 지역구 국회의원 측은 이상한 낌새를 차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역으로 돌아 가려는 이 군수의 차량을 추적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런 사건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대표적인 ‘돈공천’ 시도 케이스다. 지역별로 유력 정당의 후보로 공천받는 것은 곧 당선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후보 선출이 임박하면 물밑에서는 치열한 돈 싸움이 벌어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예비후보와 유력자 간 돈거래는 은밀하게 이뤄져 겉으로 볼거지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선거가 두르익을수 국회의원에 공천 현금으로 거액을 건네려 한 혐의로 이기수(61·한나라당) 정씨를 구속했다. 이 군수는 지난 16일 서울의 한 커피숍 앞에서 수행비서를 시켜 지역구 국회의원 수행비서에 현금 2억원이 든 소포백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이 건네질 당시 이 군수는 국회의원과 커피숍에서 만나고 있었던

▲박치영 사회1부장 unipark@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濤濟	논설주간 申滄榮	편집국장 李慶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1부 2200-612	사건부 2200-691	사회2부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